

No. 2013-29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7. 15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주목되는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미국 버냉키 FRB의장의 금융완화 필요성 발언으로 달러약세 · 엔화강세
- 장기금리 :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과 엔화강세에 따른 채권수요 증가로 하락세 (국채가격 상승)

구 분	7.8(월)	7.9(화)	7.10(수)	7.11(목)	7.12(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101.35	101.05	101.15	98.65	99.03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25.66	1,141.53	1,131.97	1,151.76	1,136.72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109.34	14,472.90	14,416.60	14,472.58	14,506.25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880	0.865	0.855	0.830	0.815

□ 주요 거시경제지표

- 6월중 엔화환율은 전월보다 강세,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
- 5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2%상승했으나, 전년동월비로는 7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지 않음
- 5월중 경상수지는 엔저효과로 4개월 연속 흑자 기록

구분	2011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1.2(2.0)	4.1			-	-	-
수 출(천억엔)	653	639(637)	48	53	63	58	58	-
수 입(천억엔)	697	721(707)	64	61	66	67	68	-
對한국 수출	52.1	49.7(49.1)	4.01	4.25	5.21	5.07	4.61	-
對한국 수입	32.9	32.8(32.4)	3.12	2.92	2.81	2.58	2.85	-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226			-	-	-
對한국 투자	(24)	(40)	7.5			-	-	-
소비자물가(전기비상승율,%)	0.0	▲0.2(0.0)	▲0.3	0.1	0.3	0.3	0.2	-
실업율(%)	4.5	(4.4)	4.2	4.3	4.1	4.1	4.1	-
경상수지(천억엔)	76.2	42.9(47)	▲3.6	6.4	12.5	7.5	5.4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89.2	93.2	94.8	97.7	101.08	97.43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33	1,165.79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2013년판 방위백서』 일본방위성, 7월10일
*출처:http://www.mod.go.jp/j/publication/wp/wp2013/pc/w2013_00.html
- 『고부가가치형 벤처기업의 창업 : 21세기형 새로운 성장전략』 일본뉴비즈니스 협의회연합회, 7월12일
*출처:<http://www.nbc-japan.net/documents/teigen2.pdf>

② 주간경제이슈 : 주목되는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

□ 2013년판 방위백서 발표

- 7월 9일 발표된 2013년판 일본방위백서에서는 안보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 등의 대응책을 강조
- 특히, 방위산업에 한 챕터를 할애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품의 국제적 상호조달 방식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본은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일본 방위산업의 현황

- 방위산업은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담당, 특히 방위장비의 생산은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
 - 전투기 관련 기업은 약 1,200개사, 전차 관련 기업은 약 1,300개사, 호위함관련 기업은 약 2,500개사
- 방위산업은 수요자인 방위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방위산업생산량은 일본 전체 공업생산량의 1%에 불과
 - 방위장비의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방위수요의존도(방위관련 매출/기업의 총 매출)는 평균 4%로 낮으나, 소규모 기업들 중에는 50%를 넘는 기업도 있음

□ 일본의 국방연구개발비 한국의 1/3, 미국의 1/100

-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2011년도 국방연구개발비는 일본이 694억엔, 한국은 일본의 3배, 미국은 일본의 100배로, 장비의 고성능화에 따른 가격상승 등을 반영

□ 방위산업 강화 방향

- 일본방위성은 작년 6월 발표한 「방위생산·기술기반연구회 최종보고」를 통해 방위생산·기술기반에 관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
 - 일본이 보유해야 할 방위생산·기술기반
 -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위력의 유지·정비를 위해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중요분야를 선정

- 방위산업조직
 - 방위생산·기술기반의 과제를 극복하고, 유지·육성·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제휴, 부문통합 등 산업조직의 재편과 기업간 제휴를 활용
- 방위기술
 - 방위장비의 요소기술면에서, 민생용 기술과의 기술의 양용화(dual use), 무국경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용기술 및 범용기술의 활용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연구 및 기술유출대책도 강구
- 국제공동개발·생산
 - 중요분야 선정 시 국제공동개발·생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공동개발·생산의 메리트 및 유의점을 고려한 후 참가를 검토
- 정부의 지원정책
 - 경쟁 환경 구축 및 조달방법 개선
 - 방위장비의 제조 등에 관한 제약 및 규제에 대하여, 업계의 창의적 연구개발과 국제공동개발·생산 참여를 적극 지원
 - 부처간 산관학 연대 추진 등

□ 무기수출 3원칙 완화를 통한 수출 및 국제공동생산·개발확대

- 일본 정부는 2011. 12. 27,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
 -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한다는 3원칙의 이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자국 무기의 수출을 전면 가능하게 한 것임
 -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등 다른 우방과 공동으로 전투기 등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인도적 목적일 경우 일부 장비·비품의 수출도 가능하게 됨
- 이어 금년 3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 F35와 관련하여, 분쟁당사국에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일본기업의 부품제조 참여를 허용하는 담화를 발표
 -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는 美日방위기술협력의 심화를 통한 동맹관계 강화, 일본의 방위산업육성 차원에서 취해진 것인데, 이에 따라 F35전투기 제조용 부품수출이 확대될 전망

③ 경제정책동향

□ 관민 공동으로 중동에 재생의료 수출

- 일본정부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재생의료의 수출에 시동
 - 이르면 2015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장 치료에 사용하는 재생의료기술의 수출을 검토
 - 1차로 일본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테루모(주)가 심장재생의료기술을 의료기기도 포함하여 판매
- 일본의 의료분야는 수입초과 상태에 있어 비교우위가 높은 재생의료 분야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
- 중동 국가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테루모가 치료실험을 하고 있는 재생의료분야로서, 환자의 대퇴부 근육에 있는 세포를 체외배양하여 중증심부전환자의 심근표면에 붙이는 작업임
- 재생의료 수출 분야에서는 치료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현지 의료법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재생의료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포의 배양기기 등도 같이 판매
- 중동국가들은 부유층도 많아 재생의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며, 수출은 산학관 기구로서 4월 발족예정인 MEJ(medical excellence japan)이 담당
- 일본정부는 재생의료의 실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재생의료제품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약사법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에서 약사승인을 얻게 되면 현지 당국과 심사 간소화에 관한 교섭을 벌일 예정
- iPS세포를 사용한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후생노동성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심사기준표준화에 착수하고 있는데, 일본의 의료업체로서는 iPS세포를 사용한 재생의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외사업을 수행하기가 용이해 짐
- 2조엔 규모에 달하는 의료분야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아베총리는 의료수출에 주력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재생의료의 세계시장은 2012년 3,400억엔에서 2050년에 53조로 확대될 전망
 - 재생의료분야는 실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경우 의료수출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 각국이 수요쟁탈전에 참여하고 있음

4 일본기업동향

□ 일본 상사, 중국기업 매수를 통한 진출 확대

-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의 일용잡화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도의 물류 노하우를 가진 일본 상사들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일용잡화 도매거래량은 연간 2조 2,000억엔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전역에 수 만개의 중소도매업자들이 있으나, 효율적인 물류거점을 가진 기업은 매우 적은 실정
- 이에 이토추는 보민서(宝敏瑞)와 영파신작포경무(寧波新作浦經貿) 등 2개 중국 기업을 매수, 주식 85%를 매입
- 이토추는 이미 성도, 정주, 심양 등 중국 13개 거점에서 일용잡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고성장을 하고 있는 절강성 지역의 2개 기업을 산하에 넣고 2015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580억 엔으로 늘릴 계획
 - 보민서와 신작포는 연간거래량이 합계 1,100억 엔으로, 유니리버와 프로cter 앤드 갬블(P&G)등 구미 브랜드에 강함
 - 이토추는 자생당 등 일본브랜드에 강점이 가지고 상호보완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이토추는 산하 패밀리마트의 점포운영 등을 통해 축적된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 방식의 수발주 배송체재를 각지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일본식의 효율적인 재고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임
- 마루베니도 49%를 출자한 합작회사 상해백홍상업무역(上海百紅商業貿易)이 일용품 등의 취급품목과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외에 판매지역도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임
 - 지방도시에서도 일용품 수요가 증가, 2012년 매출액이 10년 전의 4배까지 확대
 -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과도 거래가 있어 패밀리마트 등 편의점을 중심으로 수익원이 되는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음
 - 창고 등 물류기능도 충실한 편으로 일본계 소매 업체들로서도 중요한 파트너임
- 미쯔비시상사도 출자한 대련가능물류(大連佳菱物流)를 통해 도매업을 전개하고 있음

5 한국관련워치

□ 덴소, 70억 엔 들여 창원공장을 확장 이전

-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 덴소가 국내 창원시에 있는 자회사 덴소풍성전자 공장을 확장, 이전
 - 연면적은 4만5천 평방미터로 주행속도 등을 표시하는 계기류 외에 전자키와 앞 유리창에 주행속도 등을 표시하는 전자부품도 생산
 - 투자액은 약 70억 엔, 2014년 6월 조업개시 예정으로 현대자동차 등에 부품을 공급
 - 생산품목 확대에 맞추어, 현재 약 700명의 종업원을 2015년까지 800명 정도로 늘릴 계획
- 신규 공장 가동 후에는 추가 투자하여 부품을 설계하거나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시설도 설립할 계획